

중국국제주류박람회(CIADE 2009) 한국관 참가 결과

임완혁 기획조사팀 과장

2009년 7월 3일 부터 5일까지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국제전시센터(Beijing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에서 제3회 중국국제주류박람회가 열렸다.

중국 주류산업 대표단체인 중국양주공업협회 주최로 열린 동박람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주류전문 전시회로 1만 6천 평방미터 규모에 6개국 170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전시기간 3일 동안 1만 8천여 명의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우리 대중주인 소주, 맥주, 위스키, 과실주, 청주, 약주 등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국내외 각종 주류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으며 우리술 전시 및 시음활동을 통해 우리술의 맛과 멋을 직접적으로 소비자 및 주류관련 종사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중국, 동남아등에서의 한류열풍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한식 세계화등으로 한국술의 대외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술에 대한 인지도와 경쟁력도 높아져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수지 개선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술의 해외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한국주류산업협회는 회원사인 금북주, 선양, 충북소주와 함께 7부스 규모의 한국관을 구성(협회, 금북주, 선양 각2부스, 충북소주 1부스)하고 중국인들에게 한국술의 우수한 맛과 디자인등을 알리고 중국으로의 수출을 넓히기 위해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박람회에 참가를 하였다.



한국주류산업협회 부스



금북주 부스



선양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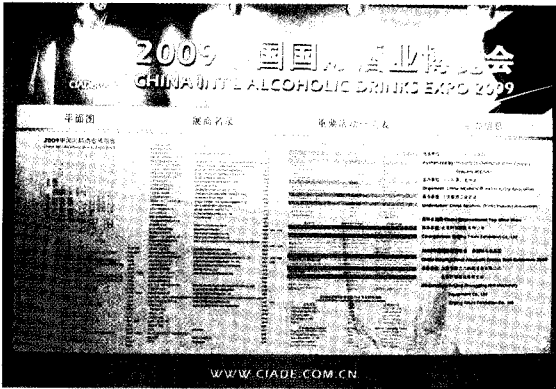
충북소주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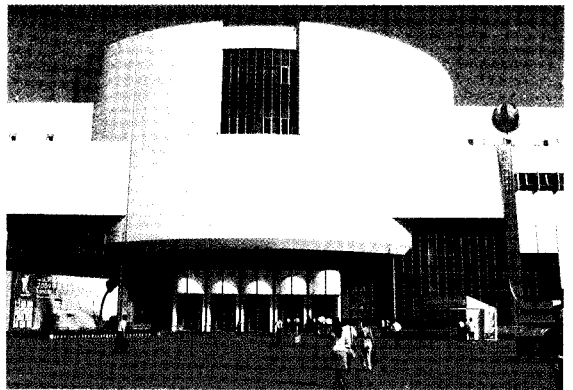
개막식



관람객 등록



부스안내도



전시장 전경

중국국제주류박람회 전시장은 국내관(Domestic)과 국제관(International)으로 구분되었으며 국내관에는 중국의 맥주, 맥주, 황주 등 100여개 메이저 중국주류업체가 참가를 하였고 국제관에는 한국, 일본, 이태리, 미국등이 참가를 하였다. 국제관중 규모를 갖추고 참가한 국가는 한국(7부스)과 일본(12부스), 이탈리아(3부스)이며 일본의 경우는 일본주조조합에서 사케를 위주로 전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이탈리아도 와인협회에서 참가를 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와인을 선보였다. 국제관 입구(좌측)에 위치한 한국관은 협회, 금복주, 충북소주, 선양 순으로 위치를 하였으며 타 국가관 보다는 부스의 디자인이나 구성면에서 눈에 띄어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협회관에는 회원사에서 생산되는 소주, 맥주, 위스키, 과일주, 청주, 약주 등 전주류를(약 200여종) 주종별로 전시하였으며 행사 도우미의 의상으로 가져간 우리의 한복과도 잘 어울려 기념촬영을 하기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한국술에 대해서는 주로 가격을 문의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한국술의



중국 국내관 부스

병마개, 용기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 한국술에 대한 관람객 주요 문의 및 평가

- 한국술은 용기와 디자인이 다양하고 이쁘다
- 한국술에 대한 가격, 업체 문의
- 한국술의 병마개에도 많은 관심(특히 맥주, 소주, 위스키)
- 맥주의 경우 페트 및 알루미늄 용기와 트위스트캡에 관심
- 소주, 청주, 약주, 과실주의 원료 및 제조방법 등

특히 방문객중에는 중국의 신화통신사를 포함한 일부 방송 및 언론에서 방문을 하여 한국 주류의 다양하고 멋진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벌여 높은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술 전시

한편 금복주는 자사제품인 참소주, 오크젠(중류식소주), 화랑등의 제품을 전시 홍보하였으며, 충북소주는 ‘휘’ 전시홍보, 선양은 신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 시음활동을 위주로 전시활동을 전개하였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방문객은 3일간 1만 8천명 으로 집계되었으며 관람객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주류관련 도소매상, 호텔등 업소관계자, 언론인, 일반인등이었다.

일자	7월 3일(금)	4일(토)	5일(일)
관람객 수	8천명	6천명	4천명

금번 중국국제주류박람회를 통해 중국의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하고 한국술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은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개발 등을 통해 더욱 더 많은 우리의 우수한 주류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국제주류박람회 현장 스케치

한국관





중국국내관

